



나무(木)와 사람(人)

生命이 있는 사람과 나무 사이에는 밀접한관계가 있으며 大自然에 존재하는 一部分이기는 하지만 인간 생활에 있어서 특히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樹木이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지상의 作品中の 하나라고 하겠다.

생명이 있는 나무를 나무라하고 죽은 나무로 벨감이 된것을 「낭구」라고 하여 낭구하러 간다고 樵夫가 말한다.

나무목字는 象形文字로서 사람인(人) + 열십(十)으로되어 있고 人字는 너와 나 좌우의손, 합작, 협력, 조화, 상호부조를 뜻하고 十字는 地平線(↔) 및 땅의 형상으로 인간, 동물, 식물, 광물등이 존재함과 하늘의 빛(↓)이 드리워짐으로서 땅위의 만물이 성장 발육함과 결실, 收藏하게 함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의 형상이 木字가 된 것이지만 나무는 사람과 같이 하늘을 보고 크며 빛, 비와 바람으로 성장함은 당연하며 사람도 이와 같이 하늘을 보고 直立하여 하늘의 精氣를 받아야한다. 다시말하면 사람은 하느님(天)의 真理(logos)를 받아서 日用할 양식으로 하여야하며 炭素同化作用과도 같이 不可視의 無形之景을 알 수 있도록 修道함이 人間最上の 求道者의 정신이고 소망인 것이라고 보겠다.

한편 나무는 그 뿌리(根)가 땅에 있어 不可視한것(養分攝取 過程)이고 땅의 養分 氣運을 받아 위로 그 양분을 상승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 뿌리가 튼튼해야 폭풍우 풍한설상에도 견뎌 낼 수 있어서 松柏의 절개도 누릴 수 있음과 같이 우리 인간도 그 뿌리는 정신적 心的作用에 있기 때문에 튼튼한 뿌리인 건전한 정신으로 과학 기술을 습득 연마함으로써 현대 과학문명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각자의 心根을 살찌워야할 절대自由를 행사하여야함은 나무 하나 하나가 충실해야 함과 같은 理致가 된다.

만약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그 생명은 끝나고 또한 나무둥지 전체가 썩게 되니 조각도 못하고 동량지재(棟梁之材)도 못되어 朽木不可彫也(明心寶鑑)라고 先聖先哲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같이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썩으면 그 행동도 쓸모 없게 될뿐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될것이다.

□… 우리들 個個人은 한나무의 個体和 같이 서 있으면 調和롭지 못하니 숲을 이루어야 하겠고 사람이나 나무는 언젠가는 한번 「사라짐」이 있다는 大眞理를 깨달아야 겠다…□



陸 鍾 澈

〈工博·漢陽大工大教授〉

木字를 모으면 林(수풀림), 森(나무뻗들어설삼)이 되어 洪水와 山사태도 막고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함과 같이 사람도 모여서 남에게 有益한 집단이 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聖者도 이 나무에 비유되었는데 釋迦의 상징은 보리수이고 孔子의 상징은 仁(仁木), 예수의 상징은 감람나무, 木手之子로 말할 수 있고 박달마리아 라 하여 박달나무를 상징하니 우리 民族의 뿌리인 檀君할아버지도 단목(檀木) 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금년으로 4313년이 된 우리 民族연령과 역사속에 위 의 三大聖人이 모두 이 한국땅에서 連綿하게 번성하여 왔으니 그 뿌리는 實로 우리의 先祖이신 檀祖님의 敬天, 愛民, 愛人, 弘益人間思想에 있다고 하며 넓게 同化할 수 있는 民族思想이 되는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의 뿌리를 되찾고 확고히 함이 民族主体, 自主意識을 공고히함이라고 하겠다.

진리는 가까운곳에 있기도 하고 먼곳에 있기도 하나 가까운곳에 있는 나무(木)를 보고 한번 自心直覺 즉 깨우칠 수 있지않을가 하며 우리들 個個人은 한 나무의 個体和 같이 서있으면 조화롭지 못하니 숲을 이루어야 하겠고 사람이나 나무는 언젠가는 한번 「사라짐」이 있다는 大眞理를 깨달아야 하겠다.

「사람」이 「사라짐」이 되고 「불사름」 당하게 된다. (佛家式葬事) 이때 空手來 空手去의 사람임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 사람의 본연의 자세 본성(本性)인 사랑을 남에게 실천해야 함은 당연하다. 나무도 사람을 위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랑으로 남을 위하지 못하면 나무와도 같지 못하다고 하겠다.

과학기술을 직업으로하는 우리들은 자칫하면 영원한 生命水, 하늘이 주신 原天水를 사람의 뿌리에서 吸水同化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쉬우니 可視的物質의인것과 不可視的 精神的인 영양분을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에서 마음껏 攝取함으로써 나를 위하고(為吾) 남을 위하여(為他) 確固 不可拔의 國家根幹을 이룰수 있지 않을까 한다.